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2년 10월 뉴스레터 vol. 58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먼 길은 혼자 갈 수 없다

알쓸신장 장례식 바가지는 왜 없어지지 않나

메멘토모리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한 방법들에 관하여

조합소식 죽음에 말을 걸다 - 모의 채비추모장례 촬영

서울조합, 10월 신입조합원 교육 안내

먼 길은 혼자 갈 수 없다



흥흥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더니 박원순 시장표 정책을 하나둘 지우기 시작했다고. 예컨대 마을이니 협동조합이니 사회적경제니 하는 것들이다. 관련 기관이 없어지거나 예산이 줄어 갑자기 실업자 신세가 되거나 아무 일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점집’을 소개해 달라는 이도 있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가 서울혁신파크(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에서 쫓겨났다. 청천벽력 같은 통지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련하느라 힘에 부쳤을 것이다. 10년 정든 동지를 떠나려니 피눈물도 나고 억울했을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통합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후배가 곧 실업자 될 것 같으니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사회적경제 입장에서) 더욱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않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0대 국정과제 중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충격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국회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지난 9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출범 4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와 출범 2개월을 맞은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기후위기,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가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윤 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보수와 진보는 없고, 사회적경제는 특정 정부의 대표정책이 아니”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출범 전에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에 적극 참여했고,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참여하였고, 여러 단체와 활발하게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우리 조합이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묶여 15억원 자본금 문제로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연대의 힘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예전부터 협동조합의 길이 참 외롭다는 생각을 해왔다.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친구들도 사라지려 한다. 사회적경제의 위기는 결국 우리 조합에도 영향을 미친다. 협동조합은 홀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넓고 촘촘하게 형성될 때 우리 조합도 살아갈 수 있다. 먼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장례식 바가지는 왜 없어지지 않나



나는 13년째 장례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 조합만이라도 장례현장에서 폭리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 보자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일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어느 행사에서 ‘수고비’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경우 현장팀장에게 확인하고 주의조치를 하는데 잘 없어지지 않는다. 장례현장은 너무 복잡해 각 영역에서 오가는 돈이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장례 현장에서 바가지 관행은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을 하나로 본다. 상조회사와 상조팀장(프리랜서 장례지도사)의 불평등한 하도급 관계 때문인 것이다. 상조회사 소속이라 해도 정규직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70~80만원의 수당을 주는 곳도 있지만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조회사는 행사가 발생하면 순번 따라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콜’을 한다.

상조팀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행사에서 최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패키지 상품에 포함돼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는 수의, 관, 유골함 등을 ‘업셀링’하고, 장례식장이나 봉안당, 생화제단을 소개하면서 알선수수료(리베이트)를 챙긴다. 상주가 수고비를 챙겨준다면 더욱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3일장을 하는 동안 알뜰하게 받아낸 돈을 상조회사와 나눠 갖는다. 그 비율은 상조회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장례지도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는 전문자격증 학원, 대학의 관련학과, 상조회사의 인력양성 등으로 해마다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온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보니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인건비가 하락한다.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게 골라 쓸 수 있고 수완이 좋은 장례지도사를 선호하게 된다. 상조회사가 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례지도사의 수명(?) 또한 그리 길지 않다. 오십 넘어 현장을 뛰는 경우는 드물다.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젊은 인력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이 먹기 전에 최대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업계에 입문하자마자 듣는 소리가 누가 한 달에 1천만 원을 벌었다느니, 누가 차를 외제차로 바꿨다느니 하는 것이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조회사는 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일까. 당연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접 고용을 하면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으로 비용이 나가야 하고 노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각 지역별로 상조팀장을 두면 현장관리도 용이하다. 상조회사는 사실 전국 장례서비스 시스템과 장례지도사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플랫폼에 가깝다.

첫째, 대학을 졸업한 장례지도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정도다. 첫째, 병원이나 전문장례식장에 취업하는 것이다. 초임으로 연봉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다. 근무연수가 많아지면 급여는 올라간다. 대형병원 장례식장일 경우는 일반 회사원처럼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를 근무하고 하루 쉰다. 자체 행사가 발생하면 진행하기도 하고, 수시로 번사, 사고사, 자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해야 한다.

둘째, 상조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장례식장보다는 급여가 훨씬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콜이 떨어질지 몰라 불안하고, 전화기를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자야 한다. 사우나를 갈 때도 전화기가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담아 지녀야 하고, 마음 놓고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실 수도 없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계속 긴장해야 하고 장지가 먼 경우 왕복 10시간 넘게 버스를 타는 경우도 많다.

셋째, 프리랜서로 뛰는 경우다.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독립하기도 하는데, 직접 행사를 뛰거나 장례지도사에게 일을 주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이 경우 영업이 관건이라 인맥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홍보와 영업에 집중해야 한다.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외에도 기업전문 상조회사도 있고, 상조회사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때 헐값에 떠넘기는 의전업체도 있다. 현장을 뛰지 않고 입관보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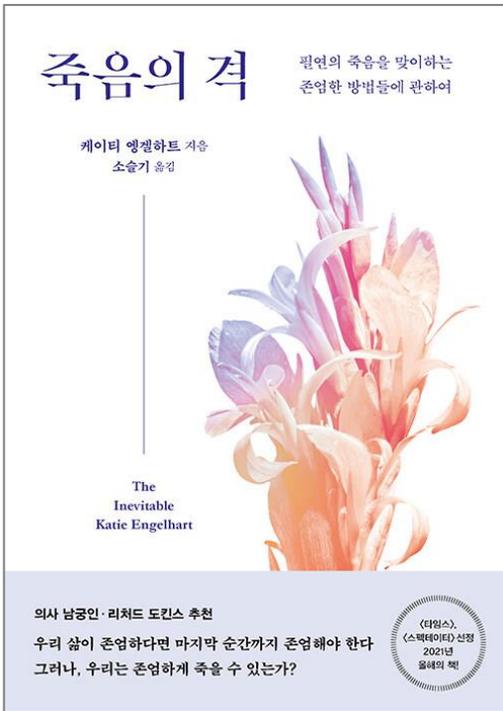
장례지도사는 누구도 대신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주는 존재다. 그럼에도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을로 살아가야 한다. 누가 이들을 장례현장에서 돈이나 뜯어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키는가.

장례지도사들은 장례가 끝난 후 상주와 유족이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돈벌이에만 눈이 먼 상조시장의 비인간적인 노동착취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장례지도사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필요하고, 상주와 유족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장례가 힘들고 무거운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그들이 귀한 일을 하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한 방법들에 관하여



죽음의 격

케이티 엔겔하트 | 은행나무

“정말로 간단했다. 사람들은 존엄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무언가가 존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때는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죽음을 계획하는 일은 보통 존엄하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이 상상하기에 굴욕적이거나 모멸스럽거나 헛되거나 속박당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추하거나 신체가 불품없어 지거나 재정 파탄을 초래하거나 부담스럽거나 불합리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무언가를 피하는 것이었다.”
-본문 37P 중에서

이 책은 존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죽음의 시간>(2019)을 공동 제작해 프래그먼츠 영화제에서 ‘최고 장편상’을 수상한 기자 케이티 엔겔하트가 6년의 집요한 취재 끝에 펴냈다. 우리가 마주할 ‘존엄한 죽음이 보장된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지극히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존엄하게 죽고 싶다고 부르짖는 사람들과 존엄사법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고 맞받아치는 사람들, 존엄사가 인권의 보장인지 침해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판사, 윤리와 신념의 문제로 존엄사를 거부하는 의사,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존엄사를 진행하고 지지하는 의사….

저자는 1940년대부터 존엄사가 합법인 스위스, 가장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1994년 세계 최초로 존엄사법(오리건주)을 통과시킨 미국 등에서 있었던 죽음과 존엄에 관한 철학적·제도적·법적·윤리적 논의부터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돕는 지하조직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존엄과 죽음에 얽힌 논쟁과 활동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베티는 내게 말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마주하고 어느 정도 통제하길 바라는 사람과 죽음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는 죽음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본문 15P 중에서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죽음에 말을 걸다 - 모의 채비추모장례 촬영



‘늘봄미디어’ 제작사에서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죽음에 말을 걸다’의 촬영이 공간채비에서 있었습니다.

‘죽음에 말을 걸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수 방송영상콘텐츠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삶에서 죽음을 금기시 하는 사회풍조속에서 오히려 죽음에서 삶을 되돌아 보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기획과 내용이 채우고 비우는 채비장례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오래전부터 제작진으로부터 문의를 받아오다가 이번에 모의 채비추모장례식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자 조합원이 고인 역할을 맡아주셨고, 친구 및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고인의 지인으로 참석하여 진행했습니다. 모의임에도 불구하고 추모장례의 진중한 울림과 감동으로 참석자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말을 걸다’는 총 2부작으로 공중파 및 OTT에 선보일 예정이며, 공개가 되는대로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로 깊이 있는 추모가 가능한 채비추모장례가 사회적 인식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작고 아름다운 이별, 채비장례 소개

희망시민플랫폼 씨실 인터뷰



‘희망시민플랫폼 씨실’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채비장례를 소개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씨실은 민주적 가치, 사회정의, 인권,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의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모임입니다.

인터뷰는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전승욱 부장님이 진행했는데,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소개와 역사, 채비장례의 차별점, 장례서비스 및 추모장례 소개 등을 했는데, 특히 추모플래너로서 경험한 다양한 추모장례의 에피소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조합원이라면 꼭 들어보아야 할 조합의 정체성과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활동 등을 알 수 있는 기회이니 꼭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채비 씨실 인터뷰 1부 <https://youtu.be/YKxkPuzAo6M>

채비 씨실 인터뷰 2부 <https://youtu.be/mvWLxT-WiHM>

[서울조합] 10월 신입조합원 교육 안내

협동조합으로서의 우리조합 이해하기

우리 조합에 가입한 신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협동조합 교육입니다.
격달에 한 번 진행하며 신입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내용: 협동조합과 우리조합의 의미, 채비장례의 필요성, 우리조합의 역사, 미션, 방향과 가치 등
- 강사: 김경환 서울한겨레두레협동 상임이사
- 일시: 2022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3시30분 (1시간 30분)
- 장소: 화상회의(zoom)
- 교육 문의: 722-9517
- 신청: <https://forms.gle/UxmgqcqaoydxagS2A>

2022년 9월

배현지 조합원 시모상
이윤수 조합원 시조모상
정귀례 조합원 부친상
임정은 조합원 시모상
채규조 조합원 모친상

이지영 조합원 부친상
김진희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이수현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통일운동가 정용일 민주사회장
김선광 조합원 모친상
정윤희 조합원 부친상

2022년 8월

이미례 조합원 모친상
이수진 조합원 부친상
엄자옥 조합원 모친상
김정석 조합원 부친상
박수경 조합원 시부상
정대근 조합원 빙모상

김윤정 조합원 모친상
추경호 조합원 처남상
임갑열 조합원 형제상
임석규 조합원 모친상
윤복식 조합원 모친상
서단비 조합원 부친상

신동국 조합원 가족상
김지영 조합원 시모상
김남희 조합원 모친상
김종석 조합원 모친상
박사훈 조합원 빙모상
오은정 조합원 시모상

2022년 7월

박선아 조합원 배우자상
장성오 조합원 사돈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문치성 조합원 모친상
허주영 조합원 부친상

권혁술 조합원 모친상
이보은 조합원 시모상
이복희 조합원 모친상
이종대 조합원 부친상

최혜연 조합원 시부상
김상현 조합원 지인상
남영우 조합원 모친상
신성호 조합원 모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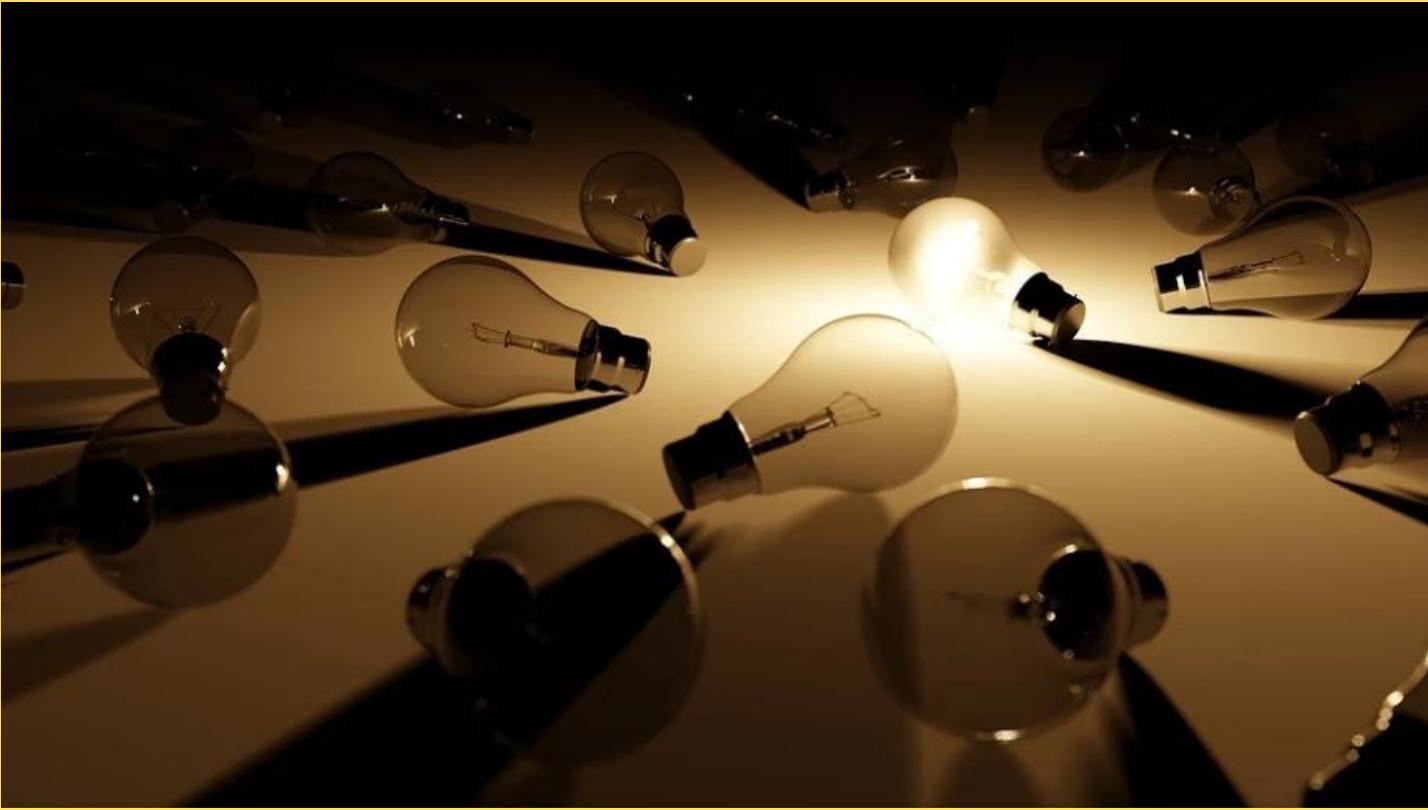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GG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조합원에게 알립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유사상호 주의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한겨레상조'로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상조'는 후불제업체로 우리 조합의 명칭과 앞의 세 글자 '한겨레'만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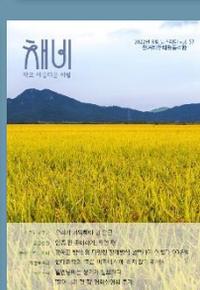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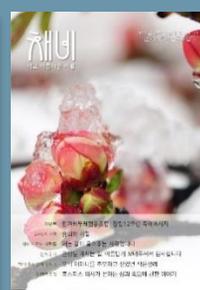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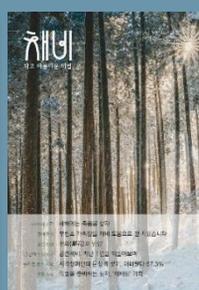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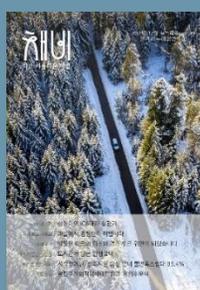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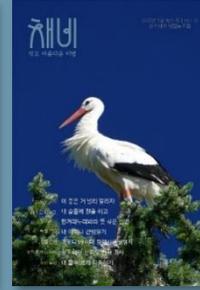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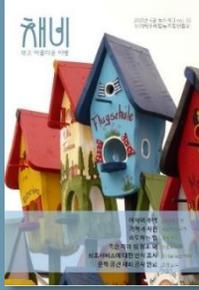
우리 조합의 명칭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브랜드는 '채비'입니다. 또한 우리 조합은 '상조'라는 단어 대신 '상포계' 혹은 '장례'라 표기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상담: 1800- 9517 / 장례접수: 1588-9517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